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 전주비빔밥축제 ‘팡파르’

3355 우리동네 비빔밥으로 ‘출발’

12일까지 한옥마을·향교 일대에서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 진행

2019 전주비빔밥축제가 9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민과 여행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비빔밥축제는 행사장 메인에 위치한 대형비빔밥을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나눠먹는 ‘3355 우리동네 비빔밥’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는 개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향교 일대에서 맛과 멋, 즐길거리가 가득한 6개 분야 4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마스터셰프 쿠킹콘서트에는 샌안토니오(미국), 오스터순드(스웨덴), 엔세니다(멕시코), 순더(중국) 등 4개국 셰프들이 직접 참여해 세계 국제음식창의도시의 전통음식을 선보이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손맛을 이어온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도

축제장에 직접 나와 음식시연과 시식으로 쿠킹콘서트에 풍성함을 더한다.

또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국 요리관련 학과 학생과 전문가 등 700여명이 전주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의 장을 펼치는 전국요리경연대회 라이브 경연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음식의 뿌리로 알려진 전라감영 관찰사 발상과 135년 전 전라감영을 다녀간 외국인의 일기에서 찾은 전라

감영의 외국인 접대상도 재현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과 서학동 예술마을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어오면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와 전국 40여개 팀이 참여하는 비빔문화공연 ‘비스킴으로 몰들다’ 등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축제 연계행사로 △제3회 1593 전주별시 △미당놀이 ‘용을 쫓는 사냥꾼’이 오는 12일 전통문화연수원과 전주향교에서 각각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내년 상반기 ‘한옥마을 한달 살기 참여자’ 모집

전주시, 외국인 대상 31일까지

전주시는 외국인이 한 달 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실제 생활하며 SNS를 통해 전주를 홍보하는 ‘2020년 상반기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3~6명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는 기존 작가 지원 공간으로 활용되던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에서 한 달 씩 거주하게 된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관광자원 등 전주의 매력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게재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전주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중 SNS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이 가능한 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새소식’에 게시된 ‘2020년 상반기 전주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별인 전주 문화정책과장은 “한옥마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전주 SNS 홍보 활동이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서 상연

완주문화재단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지난 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 승진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시대의 일상과 애환을 담은 내용을 소리와 곡으로 표현한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상연했다.

이날 공연은 공무원교육의 단순 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생동감있는 현장반주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음악의 소리 연극 형식으로 교육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은 일제강점기 삼례지역을 배경으로 쌀 수탈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극이다.

공연을 관람한 교육생은 “완주군에 이런 훌륭한 공연이 있었다니... 소리연극은 처음 접하는데 매우 신선했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빠져들었다. 이 공연이 전국적으로 순회공연되길 바란다.”는 후기를 남기며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완주문화재단 이상태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 나아가 전 국민에게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삼례, 다시 봄!’은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 초대로 진행됐다.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063-291-7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태풍 피해지역에 온정의 손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7일부터 9일까지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온정면사무소를 찾아 이재민들과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이동봉사 지원을 진행했다.

‘10월 9일은 한글날, 한글은 위대한 유산’

전주시, ‘한글지킴이’ 정재환 강사 초청 열린시민강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8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573돌 한글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한글지킴이로 잘 알려진 정재환 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정 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로 인정받는 한글의 가치와 역사를 소개하고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강사는 강연에서 “언어는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 정책과 운동이 필요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과 맞춤

법을 지켜야 한다”며, “한글의 기본이 흔들리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공연으로 가야금 병창과 아쟁의 전통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지난 8일, 573돌 한글날을 기념해 진행된 전주시 열린시민강좌에서 ‘한글지킴이’ 정재환 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우울감 극복 위한 ‘생명존중 힐링캠프’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여수·순천일대서 개최

우울감에 사로잡힌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캠프가 열렸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남 여수·순천 일대에서 우울감 및 자살사고 위험이 높은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힐링캠프 ‘하늘 아래 우리 함께 여행스케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둘러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해양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매일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박종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각자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만든 즐거운 추억이 앞으로 회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해 △우울 및 자살예방 상담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의료지식·기술·인적자원 교류

예수병원, 이집트 아스완 선교병원과 협약 체결

예수병원은 이집트 아스완 선교병원(AI-Germaniyya, Evangelical Mission Hospital)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과 이집트 아스완 선교병원 이합(Dr. Ehab Keny Shafiq) 병원장은 아스완 선교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하니(Dr. Hany)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통한 의료지식, 기술, 인적자원 교류 등을 주 내용으로 상호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집트 아스완 선교병원 이합 병원장과 심장내과 전문의 하니는 지난 7일, 8일 양일 간 예수병원을 방문하고 최근 개소한 예수병원 암센터와 응급센터, 주요 진료 시설 등을 견학했다. 특히 이합 병원장은 예수병원 심혈관센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을 참관한 후 아스완 선교병원 의료진의 예수병원 심혈관센터 연수



를 요청하고 예수병원 의료진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이집트 아스완 선교병원은 이집트 남동부 나일 강 동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의료선교병원이다. 40병상 규모로 연간 3만400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며 아스완 지역과 수단 국경에 근접한 지역주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검찰, 직접수사 축소’ 신속 추진... 검찰권 강화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 개혁’ 추진 계획 대국민 발표
인권 존중·절제된 검찰권 행사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추진과제 선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앞서 조 장관이 밝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규칙’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 등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제정된다.

이 밖에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과 행정 사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 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에 대한 전문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의 내·외 과경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각된 경우에만 과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과경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해 검사 과경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접수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뉴시스

남원준법지원센터, 성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성일유엔아이 원장을 초청해 소내 상담실에서 주 1회 읍주민제를 지닌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성행개선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7 성행 개선 프로그램 진행 이후 읍주민제 개선 등에 대한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음주의 위해성 인식,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순체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마상철 소장은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신의 읍주민제를

인식하고,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주 기자